

연 증 제 27 주 일

기도서 P. 449 C해

1독(하 바 1,2-3.2,2-4절)
2독(디 모 후 1,6-8.13-14절)
복음(루 가 17,5-10절)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협
주간	조 심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칼론□



민 음 이 상 호 신부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가정이나 단체나 교회는 믿음으로 맺어진 사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는데서 오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외에서 보충하고 도움을 받으려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힘이란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소신(所信)에 따라 그 행동이나 생활이 각각 다르기 마련입니다.

자고로 위대한 인물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세자요한등은 믿음이 강한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순교자들 역시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생명을 바칠 수 있었읍니다. 사회적인 위인들 역시 소신이 강하고 굳었기에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회에는 불신풍조가 만연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사회의 모든 악이 이 불신에서 싹튼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풍조는 우리의 신앙 안에도 침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저하니 신앙의 위기란 말이 생겼나 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일어도 산을 능히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의 신앙은 식어만 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불신풍조가 신자들의 생활 전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도생활의 포기는 믿음이 약해진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가정의 불화, 이웃간의 불이해, 비화해도 신앙과 직결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도직에 대한 무관심, 교회 유지에 대한 비협조도 신앙과 무관 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는 모두가 신앙 문제라고 봅니다. 실과를 보고 그 나무의 진가를 알아보듯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신앙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 이후 특히 사랑을 부르짖고 희망을 가지라고 떠들어 대지만 먼저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 희망도 있게 되고 사랑도 솟아나기 마련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듯이 신앙이 있는곳에 우리의 행동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즐기고 녹슬게 하고 죽이려는 악조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역시 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상관 전주교회 주임신부)



공복 (公僕 = 空腹) 과 식 중독

특히 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을 생산 내지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민족 반역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전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할 사람일수록 공복(公僕)이라 부른다. 공복(public servant)이란 낱말은 「국민의 수임자(受任者),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표현」하는 명예로운 호칭이다. 그런데, 그 공복이 허황되게 뱃속이 비어 배고픈 공복(空腹)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 배고픔을 느끼다 보니 먹어서는 안될 것까지 마구 닥치는대로 주워먹게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또, 식중독의 증상이 심하면 죽게 된다.

이러한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있었다. 옛그제 서울에서 있었던 국민학교 급식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누가 그 어린이의 생명을 보살할 것인가?

이미 소는 잃어버렸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그래서 그 어린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무디어진 우리의 양심을 잘라. 71년, 전국 가톨릭 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형제들에게 보내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공동 교서 <오늘의 부조리를 극복하자>는 가르침 소리를 들어 보자.

「상업인도 경제순환과 사회생활을 위한 봉사자이다. ...폭리만을 목적하고 매점매적으로 물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을 생산 내지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민족 반역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의 폐단은 무엇보다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데에 있다. ...금전보다 높은 이상을 우리는 되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숲 정 이 산책



(2) 순 정 이

□ 순교자 현양 글짓기 □



信 念

박 미 선 (세실리아)

울컥
 붉은 뒤통이를 쏟으며
 지켜온 가나안에
 붉은 장미 피어나고
 피 흐르던 냇가에서
 후세에 던진 돌맹이가
 열심으로 자라나면
 말없는 첩탐위에
 쌓이는 미쁨이여
 성상앞 소녀의
 가련한 소망 위로
 흐느끼는
 아스라한 피빛 함성...
 순명의 새가 되어
 박해의 칼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의연함이여
 또 다른 신념의 잉태속에
 해바라기 심으면
 속 깊이 번져가는
 은유빛 스펙트럼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풀어버린 영원한
 사랑이여
 밤 새우며 지켜온
 믿음의 불씨
 질화로 신념위에
 찬양의 노래가 퍼지면
 아아!
 더욱 더 아득한 그리움의
 유명이여

(전동 천주교회, 성심여고 2년)

□ 순교자 현양 글짓기 □



성 화 (聖火)

임 점 레 (세시리아)

바람이 날아와
 휘어지는 골목을 돌아설때
 지나는 이들은
 정결한
 생활의 향기를 듣는다
 잠자는 아가의 흉조를 담아
 저녁 노을의 화려한 잔치를 열고
 하늘이 말하는
 광활한 신비를 이끌어
 이슬이 스쳐간
 배꽃에 걸어둔다
 창살을 타고 흐르는
 저녁의 풍요로움이
 가늘게 흐르는
 시간의 착상을 안으며
 어느 작은마을
 가난한 성전에
 두손 모으는 젊은이의
 건강한 기도로 엮어지고
 줄지어 오는
 역사를 등에 업으며
 거룩한 수레를 끌다
 쓰러져간
 한 맺힌 뉘를
 뛰는 가슴의
 등백에 감는다
 아, 꿈속에 잠든 영혼이여
 우리의 체온을 느끼고 있는가
 오늘도 맑은 얼굴들은
 소음이 이는 거리의
 시작을 묻지 않으며
 불의를 터뜨리는 혀를
 탓하지 않고,
 싸늘하게 짓밟은 무리를
 나무라지도 않는다
 다만, 양심이 부르는 곳에
 머무르길 바라며
 태초를 아는
 낭랑한 소리를 듣고
 가파른 언덕에 높이서서
 천진스런,
 불멸의 성화(聖火)를 태운다. (김제 천주교회)

교우 여러분의 성원속에 자라온 한국온수는
 적은 자본으로 자립하고자 하시는 분을 구합니다.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남원지방 각개소
 위와같이 대리점을 증설코저 하오니 아래로 연락하
 시기 바랍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 65-16(전화4940)

군산 연락소 전화 3032

한 동 압 (모이세)

M^cGREGOR

☆삼성물산☆

맥그리거

전주 특약점

고급화된 기성복(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 (울리안나)

☎ ③ 4 4 5 1 품년제과 분점 앞





가난한 이들의 보물

—호라시오 델라 코스타(Horacio de laCosta)

저녁 창가에 앉아 젊은이들의 기타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내 나라의 언덕들, 저 산야를 덮고 있는 어둠을 보노라면
가끔 생각나는 게 있다.

우리는 정말 가난한 민족이다.
우리의 살림살이도, 우리의 영혼도...
진정 우리는 우리의 문학을 가지고 있는가?
세익스피어도 셰르반테스도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다.
불멸을 만나게 해주는,
우리의 산야가, 우리의 풍습이, 우리의 역사가 길이 길이 기억되는
친근하고도 우리의 것인 작품들이...
우리의 생각을 유통시키려면
외국어 동전을 주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공용어가 없단다.

그러나 가난한 자여, 그대 가진 게 있다.
우리 가난한 국민이 누더기 속에 간직한 두개의 보물
하나의 음악.

우리는 여든 일곱 방언(方言)으로 찢겨 있지만
노래부름 뿐 오직 한 겨레
블라칸의 쿤디만들은 레이테의 기타로 누리를 깨우고
북쪽의 시골에서는 농부의 아내가 아기를 재우느라 흥얼거린다.
엄마는 언제나 같은 노래를 부른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한겨레
우리의 신앙, 또 하나의 보물
우리의 별 불 일 없는 하루를 빛나게 한다.
마치 먼 옛날의 왕이 만져나 준 것처럼.
그때는 아는가, 우리의 종교와 음악이 서로 화합하는 것을?
인생의 모든 대사(大事)들이—
거두어들임과 씨부림이, 혼례와 출생과 죽음이
향그러운 분위기와 시원한 음악 속에 흠뻑 젖어든단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저 두 보물
그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영혼이다.
이 섬들의 나라에 살며
엄마가 자장가를 부를 때,
아빠가 저 불멸의 뱃노래를 부르며 배를 띄울 때,
사제는 제단에서 하느님을 하느님께 바친다.
이 민족은 정복되고 유린되고 예속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멸망될 수는 없다.
태양은 매일 저녁 묻혀도
저 바다로부터 다시 살아 오른단다.

(필리핀에서, 정 승현 신부 번역)

요십이 (218) 김병오

당국에 연행되는 문규현신부에게 그 어머니가 무엇을 주셨는지 아느냐? 몰라

목주와 성경책 단분은 무엇을 즐려는지 알아 보자

돈 많은 사장님은 무엇을? 뇌물로 쓰라고 돈과 수표를..

권력있는 나으리는? 내금직한 명함과 메모장을 주지

□아동복 전문□

까치의 집

이 윤례(테레사)
남중학교 정문 옆
(남노파출소 ↔ 동부시장)

(註)

○호라시오 델라 코스타
예수회 신부,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 교수
지난 3월에 선종
○블라칸
필리핀 북부의 한 지방
○레이테
필리핀 남부의 한지방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동
(전화 ③ 4577)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당)
전화 ⑧ 1665

공지사항

※10월은 로사리오(매피)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당신은 당신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하느님께 인도하고 있습니까? 묵주의 기도는?

1. 오늘은 군인주일...국토방위에 수고하는 국군 장병을 위해 정성껏 헌금합시다
2. 덕진 성당준공식(3일<월>) 오후 2시...축성식, 미사(김재덕 주교 주례), 축하식)
3. 중고등 학생회 추계 체육대회(9일 <일>), 해성학교 교정)
4.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3일<월>)오후 8시, 가톨릭센터)

※ 문 규현 신부(고산본당), 9월 12일에 있었던 인천 기도회와 관련되어 당국의 조사 받다.

문신부는 지난 9월 22일 아침 8시경에 연행되어 23일 오후 6시경까지 조사 받았다

순교자 현양대회를 마치고

여러 신부님들과 사도회 임원, 그리고 교구내 신자 여러분의 성원아래 순교자 현양대회를 마칠 수 있었음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구 평형의 부족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잘 채워 주셨습니다.

참가자 숫자의 등록을 받아 보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라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비교적 근사치에 가까웠습니다. 교구내 전체 신자의 8.2%가 참가했습니다. 팔호안의 숫자는 본당 신자수에 대한 참가자(등록자)의 백분율(%)입니다. 봉헌금도 본당별로 거두어 보았습니다. 참가자 1인당 약 86원 꼴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통계 수치들은 내년의 현양대회를 보다 잘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구	본당	참가자 (등록자)	현금	성가발표출연자	글짓기출품	참고(본당 신자 총수)	
1 지구	고김부수신정태	창제안류인음	80명 (9%) 150 (5) 50 (3)	7,700 19,790 7,220	11명 26 —	1편 5 —	886명 2,735 1,763
		야동안동마열산	50 (2) 200 (8)	2,705 19,330	11 —	— 5	1,667 2,240 2,566
		대문용월팔합화	50 (6) 200 (8) 150 (13) 300 (13) 120 (11) 80 (3) 115 (9)	5,410 30,605 12,470 11,530 12,160 2,965 11,320	— — 11 — — — —	— — 6 — 1 3 2	790 2,500 1,119 2,226 1,125 2,317 1,228
		고산여주창황현인	100 (4) 60 (4)	5,370 8,105	— 24	2 1	2,533 1,769
4 지구	노덕복서순진홍	송진자동이동양	110 (8) 150 (6) 100 (12)	15,190 16,510 11,240	— 24 —	1 5 1	1,556 2,642 851
		학정	300 (12) 200 (9) 300 (23) 300 (17) 100 (15) 600 (16) 600 (17)	24,445 13,366 27,500 20,640 13,055 47,800 28,905	— — 16 16 — 22 38	10 — — 14 — 6 3	2,440 2,172 1,306 1,794 661 3,846 3,450
		금남부상준임장창진	150 (11) 149 (12)	20,885 9,346	— 21	— 8	1,311 1,221
		관창실수제안	60 (6) 3 (0,5)	4,075 —	— —	3 1	869 1,065
5 지구	관창실수제안	—	—	—	—	632	
		50 (6)	—	—	2	885	
		50 (3)	—	7	1	900	
		40 (1)	5,710	—	1	1,550 2,923	
기 타	—	10,595	—	—	2	—	
계	4,967명 (8)	425,942원	211명	85편	60,959명	—	

□타자수리,취업알선,매월검정□

뉴-타자 학원

원장 신송무(바오로)
전화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광사
(구 태양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세느의상실

최준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전화 6219